

경제공동체 넘어 행정통합…광주·전남 메가시티 성공할까

정부 특별광역연합 설립 최종 승인
지난달 4자 실무회의 동등 연합 합의
시도 공동 선언 강력 드라이브 의지
시도의회 동의·시도민 설득 과제

2026년 새해, 광주시와 전남도가 던진 화두는 명확하다.

각생에서 벗어난 상생이다. 정부가 지난 12월 31일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설립을 최종 승인했고,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1월 2일 5·18 민주묘지에서 '행정통합 추진'을 공동 선언한다.

이러한 움직임의 중심에는 이제명 정부의 핵심 국가균형성장 모델인 '5극 3특 전략'이 자리하고 있다.

'5극 3특'이란 수도권 일극 체제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전국을 5개의 초광역 메가시티(5극)와 3개의 특별자치도(3특)로 재편해 다른 체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광주와 전남이 새해 벽두부터 행정통합과 특별광역연합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동시에 띠운 것은, 정부의 기조에 밭맞춰 호남권을 대한민국 성장의 핵심 축(Pole)으로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단순한 행정 구역의 결합을 넘어, 수도권 블랙홀에 맞서 지역 소멸을 막아야 할 '호남권 메가시티'의 실체적 진전을 의미한다. 하지만 과거 술한 통합 논의가 용두사미로 끝났던 전례를 비추어볼 때, 이번 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높다.

◇'특별광역연합' 승인의 의미…실리(實利) 쟁기



강기정 광주시장이 병오년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무등산국립공원 입구에서 해맞이 등산객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새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1일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한 전남도청 실·국장 등 공무원들이 무안군 남악 중앙공원 내 고(故) 김대중 대통령 동상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협의=이번에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은 '특별광역연합'은 행정통합으로 가는 징검다리이다, 실질적인 경제 공동체다.

양측은 연합의 사무소를 '전남도'에 두는 대신, 의결 기관인 연합의회 의원 정수는 시·도 각 6명씩 '동수'로 구성하기로 확정했다.

이는 인구 규모나 재정 자립도 등의 우위를 따지지 않고,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하겠다는 상호 존중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재정 분담 역시 현실적인 타협점을 찾았다. 연간 30억원 규모의 운영 예산 중 광주시가 10억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했고, 전남도 역시 내년 추경을 통해 분담금을 매칭하기로 했다.

이는 특별광역연합이 단순한 서류상의 기구가 아

니라, 예산과 인력(파견 공무원)이 수반되는 실제 행정 기구임을 증명한다.

앞으로 이 기구는 교통, 관광, 에너지 등 시·도민의 삶과 직결된 초광역 사무를 처리하며 '행정 통합'의 예행연습을 수행하게 된다.

◇'속도전' 주문 속 '신중론' 여전= 2일 예정된 시·도지사의 공동 선언은 '행정통합'을 향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양 단체장이 국립 5·18 민주묘지라는 상징적인 장소에서 손을 잡는 것은 통합의 정신적 뿌리를 공유하겠다는 선언적 메시지다.

화려한 선언 뒤에는 '디테일의 부재'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숨어 있다. 이번 선언문에는 통합의 당위성과 추진 의사만 담길 뿐, 구체적인 통합 시기나

방식(흡수 통합, 1대1 통합 등), 특례 부여 등의 핵심 쟁점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양측 집행부의 의지만으로 세부 절차를 확정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향후 구성될 협의체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과거 통합 논의가 선불리 구체적인 안을 내놓았다가 지역 간 유불리 따지기에 매몰돼 좌초됐던 학습 효과 때문으로 보인다. 일단 '비'를 띠우는데 집중하고, '향로'는 향해하면서 결정하겠다는 전략이다.

◇'통합추진협의체' 출범…시·도민 설득 관건= 결국 공은 새롭게 구성될 '(가칭) 시·도 통합추진협의체'로 넘어갔다. 협의체는 선언적 합의를 실행 가능한 로드맵으로 변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안게 됐다.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다. 특별광역연합은 '기능적 결합'이기에 갈등 요소가 적었지만, 행정통합은 '회화적 결합'이기에 이해관계가 점에 히다. 통합 청사의 위치, 공무원 조직 개편, 교육청 통합 문제 등은 언제든 뇌관이 될 수 있다.

가장 큰 변수는 시·도민과 지방의회다. 특별광역연합 규약 승인 과정에서도 의회 의결이 필수적이었듯, 행정통합은 주민 투표나 의회 동의 등 더 까다로운 민주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각각 운영 중인 행정통합 추진 단이 얼마나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공감 대를 형성하느냐에 따라 통합의 성패가 갈릴 것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시 '백운~매곡 BRT' 올해 설계 착수

국비 7억5천만원 확보…대규모 개발 대비 광천권역 교통대책 속도

광주시가 복합쇼핑몰 입점과 대규모 재개발로 극심한 교통 대란이 예고된 광천권역의 숨통을 트기 위해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사업에 속도를 낸다.

광주시는 백운광장에서 광주공고를 잇는 8.67km 구간의 BRT 도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본격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국비 7억5000만원을 포함한 관련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추진되며, 모두 361억 원을 투입해 도심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대중교통 축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신세계백화점 확장과 더현대 광주 입점, 광천동 재개발 등이 집중된 광천권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BRT 구축은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 실현의 첫 단초로 꼽힌다.

사업 구간은 남구 백운광장(옛 대동고)에서 시작해 농성역과 교통 요충지인 광천사거리로 지나 북구 용봉동 광주공고까지 이어진다. 시는 해당 노선을 '제1차 BRT 종합계획 수립계획(2021~2030)'에 반영하고 지난 4월부터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해 왔다.

시는 관계기관 협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오는 2월 중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주요 구간별 시설 배치, 전용 차량의 종류, 정류장 제원 등 세부 운영 체계가 담기게 된다. 이후 곧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 사업을 본궤도에 옮린다는 구상이다.

BRT가 도입되면 광주 도심의 대중교통 흐름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시의 용역 결과에 따르면 현재 시속 13.5km 수준인 버스 평균 통행속도는 BRT 도입 후 21.4km로 약 58.5% 빨라진다.

속도가 빨라지면서 버스 이용객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28년 기준 하루 버스 이용 수요는 BRT 미도입 시 2만8126명에서 도입 시 3만3209명으로 18%가량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 수요를 대중교통으로 분산시켜 광천권역의 혼잡도를 낮추는 효과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김종호 광주시 광역교통과장은 "BRT 구축은 광주의 교통 체계를 승용차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사업"이라며 "확보된 국비를 바탕으로 설계를 차질 없이 진행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고흥군 '스마트 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선정

스마트 양식장 등 1675억원 투입

전남도는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공모사업에 고흥군이 최종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수산업 혁신지구는 육상과 해상을 더해 33만㎡(10만평) 부지에 5년간 국비 1675억원을 투입, 인공지능(AI)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고효율·친환경 스마트 양식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이제명 정부의 '초혁신 15대 과제'인 스마트 수산업과 경제계장관 회의를 통해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추진된 사업이다.

전남도는 고흥군 도덕면 용동리 일원에 2030년 까지 AI·첨단기술을 활용한 고효율·친환경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아쿠아팜 기업을 육성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미래형 수산업 모델을 구현한다.

전남도는 고흥군을 거점으로 스마트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촉진된 기술과 성과를 도내 전반으로 확산해 지속 가능한 수산업 구조 전환과 지역 경쟁력을 함께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 말 관련 지명 216개…전국서 가장 많아

전남이 말과 관련된 지명(地名)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전남도가 2026년 병오년을 맞아 전국 지명 10만여 개를 분석한 결과, 말 관련 지명은 전국 820여개로 이 중 전남은 216개로 가장 많았다.

전남에서 말과 관련된 지명은 마을이 128곳으로 최다였고, 섬 44곳, 산 23곳 등 이었다. 시·군별로

는 신안군이 32곳으로 가장 많았고, 진도군·완도군·해남군이 각각 14곳이었다. 꼽성군이 3곳으로 가장 적었다. 말과 관련된 지명 중에는 말을 형상화 닮아 붙여진 사례가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 신안군 도초면 만년리 '말섬'은 섬 모양이 말처럼 생겨 붙여졌고, 영광군 '안마도'는 섬 지형이 말 안장과 닮아 명명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진료 내용

산부인과,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건강검진센터


에덴 병원
 광주광역시 북구 면양로 170번길 10(우암동)
 대표전화 | (062)260-3000


산부인과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소아청소년과


건강검진센터